

고도를 기다리 다보면?

원작 : 사무엘 베케트

각색 : 위성신

연출 : 최연경

획기 : 김성은

일시 : 2003년 9월 4일 · 5일 (늦은 6시 30분)
6일 (늦은 2시 · 6시)

장소 : 승실 대학교 대학극장 (제1공학관)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숭대극회 제67회 가을 정기공연을 보러와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우리는 또다시 하나의 공연을 연보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 작품은 '고도를 기다리며'의 각색본인 '고도를 기다리다 보면'입니다.

현대인의 모습을 단순화하여 극단적으로 보여주며, 모순적 상황을 통해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두게 하는 부조리극입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다가가기 위한 작가의 의도가 곳곳에 보입니다. 우리는 각색본을 통하여 한발 더 친숙하게 다가서고 싶습니다.

극회장
김종백(경제99)

매번 그렇지만 가장 대학극다운 연극을 하기 위해- 실험정신을 살리고, 고민하고, 노력했습니다.

순수한, 젊은 연극을 하겠다고, 한번 해보겠다고 모인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선풍기바람 앞에서 뜨거운 라면을 먹으며, 최고로 더운 여름을 보낸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눈 안에 있기 위해, 무대의 눈 안에 여러분의 일상을 담기 위해 연극을 합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힘들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 힘들어도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계속해서 대학극의 고집있는 이유를 들으러 와주십시오.

무더위 속에 연습을 하느라 힘들었던 캐스트들, 기획을 맡은 새내기 성은이, 공연의 아버지 연출 연경이형. 그리고 뒤에서 보이지 않게 많은 힘이 되어주신 극회 가족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오랜시간 우리 극회인들의 땀으로 지켜온 극장을 생각하며 다음, 그 다음을 준비할 것입니다.

기획의 변



기획
김성은(국문03)

“어떤날은 그리움이 너무 커서 신문처럼 접을 수도 없었다”

시인의 고백처럼 분명 나의 어떤날도 연극에의 그리움은 접히질 않았습니다.

접을 수 없는 그리움.

하지만- 접지 않을 그리움.

그래서? 다시.

“그리움을 신문처럼 펼쳐든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내 숨이 마르고, 마르고 마른다.

주홍색 한지를 방만큼 널어놓고는.

어머니는 먹물이 뚝뚝 떨어지는 봇꼴을 보셨다.

어머니수련은 먹물에 반쯤 잠겼다.

그리고 나는 다섯살.

무거운 봇을 떠받치고 내 신문지에 저지레를 했다.

새로 산 분홍무릎팍에 주먹만한 점이 번졌다.

그런데-

봇꼴이 갈라졌구나.

마르고, 마르고 마르면.

악다구니가 남을건가.

아직도 눈물마르진 않은..

봇꼴은 언제까지 거칠어져서 종이를 다치게 할건가.

나는 내 숨을 다치게 할건가.

극장은 자꾸만 울게하거나. 울지말게한다.

언제 눈물을 쓸 수 있나.

갈라진 소리사이로 매운 한숨.

연출의 변



연출
최연경(정통98)

전투는 끝났다.
이제 스스로 물러날 뿐이다
긴 그 어리석은 싸움에서
서서히, 서서히, 돌아서는
이 허허로움

아, 얼마나 세상사 인간 관계처럼
부끄러운 나날이었던가
실로 살려고 기를 쓰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애절한 일이 또 있으랴

가을이 접어들며 훤히 열리는
외길, 이 혼자
이제 전투는 끝났다
돌아갈 뿐이다.

작 : 조병화

작가연구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출생하였다. 더블린의 트리니티칼리지를 졸업하고, 파리의 고등사범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있다가 귀국하여 모교의 프랑스어 교사로 근무하였다. 1938년 이후 프랑스에 정주하여 영문 불문의 전위적 소설 희곡을 발표하였다. 처음에는 영어로 시집 『호로스코프 Whoroscope』(1930), 에세이 『프루스트론』(1931), 소설 『머피 Murphy』(1938) 등을 발표하였으며, 1945년 이후는 프랑스어로 집필하였다.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 En attendant Godot』(1952)의 성공으로 일약 그 이름이 알려졌으며, 앙티 테아트르(Anti-Thtre: 反演劇)의 선구자가 되었다. 3부작의 소설 『몰로이 Molloy』(1951) 『말론은 죽다 Malone meurt』(1951) 『이름 불일 수 없는 것 L'Innommable』(1953)은 누보 로망(nouveau roman)의 선구적 작품이며, 그 외에 희곡 『승부의 끝 Fin de partie』(1957) 『오, 아름다운 나날 Oh! Les beaux jours』(1963) 『연극』(1964), 모노드라마에 『최후의 테이프』(1960), 소설에 『일에 따라 Comment C'est』(1961)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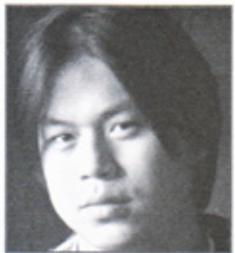
그는 스승이면서 친구였던 조이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나, 그것을 독특하게 발전시켰고, 특히 소설에서는 내면세계의 허무적 심연(深淵)이 추구되었으며, 희곡에서는 인물의 움직임이 적고 대화가 없는 드라마로 형식화되어 있다. 그는 그의 전작품을 통하여 세계의 부조리와 그 속에서 아무 의미도 없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절망적인 인간의 조건을 일상적인 언어로 허무하게 묘사하였다. 1969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작품줄거리

고고와 디디, 삐삐와 주주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존재는 고도라는 인물이다. 그들은 언제 올지도 모르는 고도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기다린다.

이들이 이렇듯 고도를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작스런 비명과 함께 럭키와 포조가 등장한다. 갑작스런 럭키와 포조의 등장에 당황하던 네 사람은 그들의 정체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 거들먹거리는 포조와의 대화와 럭키의 짧은 발작이 끝나고 럭키와 포조는 다시 그들의 길을 떠난다. 다시 남은 네 사람은 순간적인 깊은 외로움을 느낀다. 갑작스런 감정에 당황하던 네 사람은 만일 자신들이 기다리는 장소가 고도와의 약속장소가 아니거나 고도가 자신들을 잊었다면 이라는 의심을 갖게 되며, 고도를 찾아 나서거나 다른 장소에서 기다려 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다. 마침내 그들은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 보기로 한다. 그들이 닿은 곳은 땅 끝 바닷가이다. 이곳이야말로 어쩌면 그들이 찾던 그곳, 고도와 만날 수 있는 곳인지도 모른다. 새로운 희망은 그들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즐거움도 잠깐, 그들은 까닭 모를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낯선 곳이 주는 낯선 느낌.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장소가 고도를 만나기로 한 장소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무겁게 다가드는 하루를 또 견디기 위해 새로운 장소로 고도를 찾아 떠난다. 고도를 찾아 떠난 길위, 그들은 고도를 기다리는 절망에 덧붙여진 삶의 또 다른 절망들을 바라보게 된다. 완전한 절망을 견디기 위해 그들은 헛소리나 육지거리를 하는 등 갖가지 우스개 장난을 친다. 기도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고도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여전히 여행 중인 네 사람. 지치고 피곤한 그들 앞에 눈이 멀고 혼편없이 변해버린 포조와 럭키가 나타난다. 반가운 재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 다시 돌아온 원점에서 그들은 여전히 고도를 기다리고 있다. 고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처음처럼 믿어지지 않는 네 사람. 그러나 어느 정도의 포기와 절망이 그들의 긴 그림자만큼 늘어져 있다. 고도를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삶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 CAST



Never Stop. Happy Together

doppelganger@hotmail.com

주주 역
김영걸(정통98)



때로는 자기 감정에 속기도 한다
하지만 그냥 속고 싶다

stargazyoo@hot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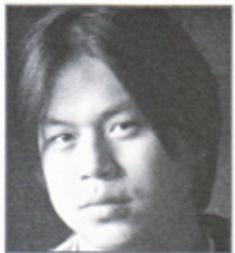
고고 역
강혜정(독문00)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되기를.

eogus20@hotmail.com

포조 역
윤대현(전기03)



항상 엔진을 켜둘게
돌아오지 않더라도

tawoogi@hotmail.com

디디 역
김태욱(경영98)



||||| STAFF



MAIN STAFF · 조명
김명진(정통96)



MAIN STAFF · 음향
한주영(경영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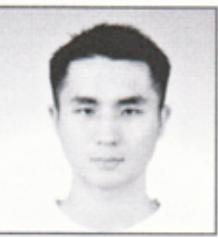
무대감독
이세훈(전기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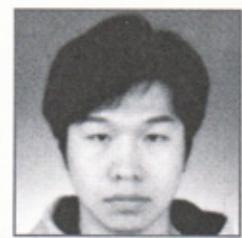
무대미술
안병진(전자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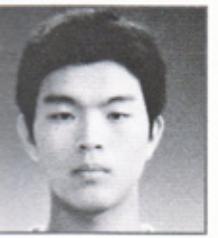
무대장치
강길호(무역97)



무대장치
차상우(기계97)



무대장치
오민석(전자97)



무대장치
윤장한(경제98)



진행
이경우(국문99)



분장
김희진(경영99)



분장
이미나(무역01)



진행
이상혁(정통01)



진행
원지은(유럽어문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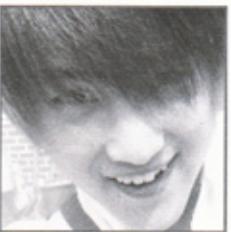


럭키 역
이원진(전기03)

STA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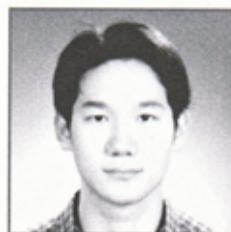
의상
노승환(물리03)



의상
김구식(전기03)



분장
배상진(행정03)



분장
신영준(언론홍보03)

정기공연연보

| 회 | 공연일시 | 작품명 | 기획 | 연출 | |
|----|---------------------------------|--|---------------------------------|-----|-----|
| 1 | 1921년 6/13 | 연출소인국 "설국열차를 이용한 미술로" "대관령 노래와 칼" | | | |
| 2 | 1923년 7/7.21 | 전통극 "우간도행장" "고제학자" "동학을" | | | |
| 3 | 1925년 7/28.29 | "소인연극" 고학성후원회 주관 | | | |
| 4 | 1965년 11/1 | "포증으로 돌아오다" 홍경석 쟈 | 이번 | 김진호 | |
| 5 | 1966년 10/28 | "Our Town" Thornton Wilder 작 | 이호주 | | |
| 6 | 1966년 10/10 | "암자풀" E. 아오네스코 작 | 고종민 | | |
| 7 | 1969년 10/28.29 | "The Miracle Worker" William Gibson 작 | 고종민 | | |
| 8 | 1970년 5/15 | "침통과 성물" John Millington Synge 작 | 한영재 | | |
| 9 | 1970년 10/28.29 | "승부의 胜負" 사무엘 베카트 쟈 | 김영기 | | |
| 10 | 1971년 5/26.27.28.31 6/1.2 | "The Rising of the Moon" Lady Gregory 작 "건널목 삶" 윤조경 작 "갈비뼈에 대하여" 안은재 쟈 "황금단지" 우간우드스 쟈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카트 쟈 | 김종호 주경서 한영재 유근재 화현재 | | |
| 11 | 1971년 11/4.5.6 | "제격쟁의 그림자" 삼오케이시 쟈 | 화현재 | | |
| 12 | 1972년 5/25.26.27 | "불길의집" H. 페터 쟈 | 한영재 | | |
| 13 | 1973년 5/21.22.23 | "미시시피강의 결혼" F.루크마트 작 | 고종민 | | |
| 14 | 1973년 10/25.26.27 | "기도"(소극장) F.아인탈 쟈 | 김복남 | 화현재 | |
| 15 | 1974년 5/25.26.30 | "정의의 사법들" A.파리 쟈 | 정종호 | | |
| 16 | 1974년 6/9.10.12.13 | "도스토에르스키라는 이름의 거북이" | 김종수 | 안종수 | |
| 17 | 1975년 10/29.30.31 | "비대한과 망월화" Max Frish 쟈 | 김기일 | 안종수 | |
| 18 | 1976년 6/1.2.3 | "인태 M" 창 풀로드 반 이탈리 쟈 | 김기남 | 김복남 | |
| 19 | 1976년 10/25.26.27.28 | "憎" 창 풀로드 반 이탈리 쟈 | 김영국 | | |
| 20 | 1977년 6/15.16.17.18 | "EQUUS" 피터베리 쟈 | 박정서 | 김종국 | |
| 21 | 1977년 10/10.11.12.13 | "EQUUS" 피터베리 쟈 | 박영호 | 김영국 | |
| 22 | 1978년 9/29.10/1/2 | "초본" 모태석 쟈 | 이철우 | 홍필승 | |
| 23 | 1980년 11/5.6 | "아니, 이 생생한 모태제 누구의 것인가?" | 윤세희 | 박광규 | |
| 24 | 1981년 6/12.13 | "노부인의 박문" F.루크마트 작 | 이종규 | 홍정선 | |
| 25 | 1981년 11/12.13.14 | "달빛여름" 김병용 쟈 | 전희근 | 홍정선 | |
| 26 | 1982년 5/12.13 | "과거를 살피다" A. 과워 쟈 | 윤진호 | 지숙 | |
| 27 | 1982년 10/7.8 | "복도우 박스" M.크리스토퍼 쟈 | 전희식 | 홍정선 | |
| 28 | 1983년 6/20.21 | "미시시피강의 결혼" F.루크마트 쟈 | 전희식 | 김영국 | |
| 29 | 1983년 10/7.8 | "트리뷴" John Bowen 쟈 | 이원우 | 이경희 | |
| 30 | 1984년 5/24.25.26 | "도가니(The Crucible)" A.Miller 쟈 | 이종규 | 오세현 | |
| 31 | 1984년 10/11.12.13 | "변천소" John Stoltenberg 쟈 | 차세운 | 이동섭 | |
| 32 | 1985년 5/9.10.11 | "빈민窟" John Stoltenberg 쟈 | 김상현 | 이동섭 | |
| 33 | 1985년 11/21.22.23 | "신부님 우간풀의 신부님" | 조만니 그레셤스 쟈 | 허승민 | |
| 34 | 1986년 6/4.5.6 | "TOMES" | 프란 브리 쟈 | 허승민 | |
| 35 | 1986년 9/11.12.13 | "로맨소" E. 아오네스코 쟈 | 연상은 | 송기봉 | |
| 36 | 1987년 6/3.4.5 | "한 여름밤의 꿈" by W. Shakespeare 쟈 | 권동진 | 오현숙 | |
| 37 | 1987년 9/10.11.12 | "오늘" A. 과워 쟈 | 오동걸 | 박경근 | |
| 38 | 1988년 6/2.3.4 | "세 번은 물어 세 번은 길게" | 이충길 | 오현숙 | |
| 39 | 1988년 5/15 | "인내나? 못내나?" by Carlo Fo 쟈 | 권태수 | 송기봉 | |
| 40 | 1988년 5/25.26.27 | "농담" 원조봉 쟈 | 정승범 | 안선우 | |
| 41 | 1989년 10/10, 17, 18 | "대성당의 살인" by T.S. Eliot 쟈 | 오경호 | 이번 | |
| 42 | 1990년 5/24, 25, 26 | "입장고보" | 정태수 | 이충석 | |
| 43 | 1990년 8/30.31, 9/1 | "한밤중대기" | 한승범 | 이경민 | |
| 44 | 1991년 9/5, 6, 7 | "생일 파티" | H. 페터 쟈 | 남재우 | 한승민 |
| 45 | 1991년 9/5, 6, 7 | "날개" | 이상 쟈 | 양현준 | 온정진 |
| 46 | 1992년 3/19, 20, 21 | "우간 나발을 불렀다" 김상현 쟈 | 임경희 | 홍현용 | |
| 47 | 1992년 9/17, 18, 19 | "길판의 예수" 김자현 쟈 | 홍경숙 | 송근호 | |
| 48 | 1993년 5/20, 21, 22 | "세상은란의 죽음" by A. Miller 쟈 | 홍경숙 | 박현상 | |
| 49 | 1993년 10/21, 22, 23 | "역사 학사" | 소재희 | 이경성 | |
| 50 | 1994년 5/26, 27, 28 | "굿 악단" 날 새미연 쟈 | 정석용 | 소경호 | |
| 51 | 1994년 9/29, 30, 10/1 | "인태고보" 소모를스 쟈 | 소재희 | 박현상 | |
| 52 | 1995년 5/25, 26, 27 | "살자 속의 여자" 김현우 쟈 | 현승숙 | 홍경숙 | |
| 53 | 1995년 11/26, 27, 28 | "나오 강을 오르자니 나루" J.M. 버스콘콜로스 쟈 | 김은경 | 남재우 | |
| 54 | 1996년 3/7, 8, 9 | "자보" | 한석운 | 손이경 | |
| 55 | 1996년 9/5, 6, 7 | "복용이란은 이름의 한자?" 대표서 허경암씨 쟈 | 조경희 | 이충희 | |
| 56 | 1997년 3/13, 14, 15 | "무인 품내" 손현 허경암 쟈 | 신현경 | 서수경 | |
| 57 | 1997년 10/8, 9, 10, 11, 12 | "대성당의 살인" by T.S. Eliot 쟈 | 임세희 | 홍정선 | |
| 58 | 1998년 3/18, 19, 20 | "살인 놀이" by E. 오네스코 쟈 | 조경희 | 이충희 | |
| 59 | 1998년 11/26, 27, 28 | "율교기로 죽게" | 원경진 | 조경희 | |
| 60 | 1999년 9/2, 3, 4 | "사랑을 지나다 모두 사랑합니다" 이정현 쟈 | 김경현 | 이정현 | |
| 61 | 2000년 5/4, 5, 6 | "아름다운 살인" | 이정희 | 이경희 | |
| 62 | 2000년 6/31, 7/1, 2 | "소나기" | 김귀하 | 박경국 | |
| 63 | 2001년 3/29, 30, 31 | "인간에 대한 예술" | 이정현 | 서경진 | |
| 64 | 2001년 9/6, 7, 8 | "바람보다 물이가다" | 김경진 | 서경진 | |
| 65 | 2002년 3/13, 14, 15 | "꽃은 바쁜데 꽃은 출연" | 김경진 | 김경진 | |
| 66 | 2003년 3/6, 7, 8 | "목수동에 서면 입구점들이 보인다" | 이미나 | 옹상진 | |

연습일지

7월 7일
오늘 첫리딩이 있었다.
<고도를 기다리다 보면?> 고도를 기다리며의 각색본이라고 한다. 신입생인 나에게 어려운 면이 없지 않지만 웬지 느낌이 좋다.
자! 오늘부터 파이팅---

7월 12일
마침내 캐스팅까지도 마쳤다. 난 뼈빠~! 선배님들과 함께 무대에 서있는 나를 생각해보았다.
어..어설프군-_a 이번 공연을 계기로 선배님들께 많은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

7월 20일
인물분석이 있었다. 다들 자기의 배역에 대해 많이 생각한 것 같았다.
이제 점점 공연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간다.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할 것이다--

8월 1일
이번 연극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무대에서 연기를 해본 날이다.
처음이라서 그런지 블로킹은 엉키고 다들 어색해 했지만 여전히 무대 위에서 흘리는 땀은 아깝지 않았다.

8월 8일
벌써 8월도 열흘 가까이 지나갔다. 공연일이 점점 다가오고 심리적인 압박이 커감에 따라 더 열심히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일까? 오늘은 학교 주변을 돌며 스폰을 받았다. 여름의 한 가운데인지라 한시간이 넘게 밖을 돌아다닌다는 것이 모두에게 힘들고 짜증이 났을 일이지만 크고 작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국회인 모두가 파이팅 할 것이다!!

8월 9일
총회가 있었다. 총회의 내용은 두둥+ㅁ+!!
현재 대학극장이 있는 공학1관이 조만간 학교 공사로 없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후... 극장에서의 마지막 공연. 더욱더 열심히 해야 하겠다.

신입생환영공연연보

| 회 | 공연일시 | 작품명 | 기획 | 연출 |
|----|------------------------|-----------------------------------|-----|------------|
| 1 | 1975년 3.10, 11, 12 | "악마와 봄" ..Aning 作 | | 김홍수 |
| 2 | 1976년 10.29, 30, 31 | "보석과 연인" 이강백 作 | | 김득남 |
| 3 | 1977년 3.16, 17, 18 | "출발" 윤대성 作 | 전경호 | 안홍순 |
| 4 | 1981년 3.30, 31 | "셋" 이강백 作 | 한 철 | 정재호 |
| 5 | 1982년 3.24, 25 | "ARIA DA CAPO" E.St.V.Millay 作 | 이영환 | 오세환 |
| 6 | 1983년 4.16 | "임금님 귀는 달나귀 귀" 김용락 作 | 최시영 | 이용섭 |
| 7 | 1984년 3.8, 9 | "블랙 코미디" 피터 쉐퍼 作 | 전희식 | 홍여석 |
| 8 | 1985년 7.20 | "개인의 소공간" N.Horald 作 | 차세훈 | 김인보 |
| 9 | 1986년 3.17, 18, 19 | "ARIA DA CAPO" E.St.V.Millay 作 | 이영민 | 하승민 |
| 10 | 1987년 3.12, 13, 14 | "인형의 집" 헨리 입센 作 | 이길영 | 김정은 위성신 |
| 11 | 1987년 3.12, 13, 14 | "더러운 손" J.P. 사르트르 作 | 백운현 | 박경근 |
| 12 | 1988년 3.24, 25, 26 | "불가불가" 이현화 作 | 천승범 | 황금실 |



| 회 | 공연일시 | 작품명 | 기획 | 연출 |
|----|------------------------|-----------------------------|------------|------------|
| 13 | 1989년 3.23, 24, 25 | "흑인수녀를 위한 진혼곡" A.Camus 作 | 홍덕태 | 박경근 |
| 14 | 1990년 3.8, 9, 10 | "우울증 환자" Botoh Strau B 作 | 이영민 안상준 | 박혜숙 백로라 |
| 15 | 1991년 3.7, 8, 9 | "노크 노크" 줄스 파이퍼 作 | 정현용 | 이범준 |
| 16 | 1992년 5.28, 29, 30 | "꿈 먹고 둘 마시고" 이근삼 作 | 김상겸 | 양현준 |
| 17 | 1993년 3.11, 12, 13 | "메두사" George Kaiser 作 | 소장호 | 박원상 |
| 18 | 1994년 3.10, 11, 12 | "어린 왕자" 쌩떽쥐뻬리 作 | 이명성 | 홍석환 |
| 19 | 1995년 3.9, 10, 11 | "봄날" 이강백 作 | 양명호 | 정석용 |
| 20 | 1996년 5.30, 31, 6.1 | "울어라 뱃고동아" 성준기 作 | 정재훈 | 김형근 |
| 21 | 1997년 5.29, 30, 31 | "로물루스대제" F.뤼렌마트 作 | 박정극 | 정석용 |
| 22 | 1998년 6.5, 6, 7 | "결혼/아폴로" 이강백 作 | 강길호 안병진 | 류민주 |
| 23 | 1999년 6.3, 4, 5 | "자매", "리투아니아" | 홍신택 | 권내리 |
| 24 | 2000년 11.16, 17, 18 | "도덕적 도둑" Dario Fo 作 | 김명진 | 강길호 |
| 25 | 2002년 5.30, 31, 6.1 | "노부인의 방문" F.뤼렌마트 作 | 강혜정 | 서정우 |
| 26 | 2003년 5.29, 30, 31 | "택시드리벌" 장진 作 | 김종백 | 한주영 |

공연에 도움을 주신 분들

이오땡

포엑스

아우토반

혜성분식

전공필수

앤틱

코시마트

Just Friend

메카

어쭈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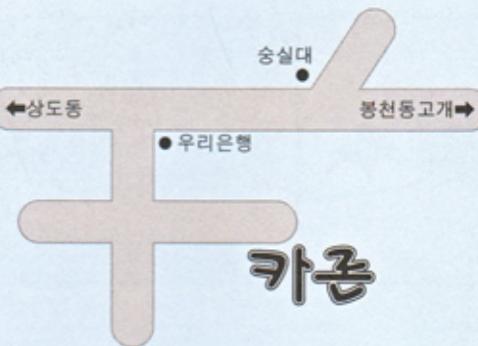
큐피드

치킨뱅이

||||||| 공연에 도움을 주신 분들

슈쾌한 노래방

도앤모



CARON

“승대극회 제67회 가을 정기공연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승실대학교극예술연구회 동문 일동 -